

한편 '**담보**'는 특정 재산이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보증**'은 (채무자의 일
반재산이외에 보증인의 일반재산만이 채권의 채권
의 확보수단으로 되어 있는 점) 담보와 보증
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담보

담보는 특정 재산인 이상 ~~것이~~ 그것이 채무자의 것이든 제3자의 것이든 가리지 않고 그것이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어서 만약 채무의 이행이 없을 때에 채권자는 법적 절차 등에 의해서 그 재산을 처분 ^{~강제집행} 하고 처분대금 중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보에 대해서는 목적물이 처분가격과 자기에게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액이 중요하며 채무자나 소유자의 자력 등은 그렇게 큰 문제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2. 보증

그러나 보증은 보증인의 인적 신용에 중점을 두는 제도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을 행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따라서 보증은 보증인 자력이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중요권

만약 보증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입장이 평등하기 때문에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한 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보다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틀림없지만 담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보의 종류, 내용, 효력 등도 법정되어 있으며, 또 담보의 설정절차도 간단.용이하지 않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보증은 보증인이 자력만 있으면 채권액은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고 또 보증징수의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담보보다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보증 또는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영업상으로나 거래안정상의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